

## 〈鸞鶴夢〉 속 주동인물군의 이중성과 그 의미\*

이지하\*\*

1. 서론
2. 주동인물군의 이중적 면모
3. 이중성의 의미
4. 결론

### <국문초록>

19세기 후반에 정태운에 의해 창작된 한문소설 <난학몽>은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여타의 한문장편소설과 마찬가지로 한문학적 소양을 갖춘 작가가 당대에 유행하던 국문소설의 요소들을 차용하며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한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읽다 보면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듯한 이중성과 자주 마주하게 된다. 이에 이중성을 가장 잘 보여 주면서도 작가의식이나 주제의식과 긴밀하게 연관되리라 생각되는 주동인물군의 형상화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하고, 이중성의 이유와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우선 인물들이 보이는 이중성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여성주인공들의 경우 남성보다 더 적극적인 성격으로 그려지는 게 이 작품의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고 호 우위의 논리 속에서 변질된다. 남성주인공들의 경우에는 충신, 효자로서 탁월한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들로 설정된 것과는 달리 실제 행적에서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 준다. 또 주인공 가문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도움을 주는 형

\* 이 논문은 2009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산도사의 경우 탈속한 인물이 끊임없이 세속적 삶에 관여하며, 도선적 위치의 인물로서 당대 지배 이념인 유교적 가치들을 강조하는 이중성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이중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소설을 통한 유교이념의 강조로써 도덕적 교화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던 작가의 의도와 현실 논리에 입각한 사건 전개 및 인물형상화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향촌의 몰락한 사족으로서 작가가 지닌 이중적 욕망이 세계관 및 정치관에 투영되어 현실과 비현실, 탈속과 세속, 이념과 실제 사이에서 부유하는 인물들을 그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설 기법 면에서 당대 소설 양식을 모방하고 차용하는 가운데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작가가 의도한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의욕에 비해 완결성이 부족한 기법적 미숙함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작품 내적 원리에 준거할 때는 소설적 완성도를 떨어트리는 부정적 측면으로 파악될 수도 있지만,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한 시대의 작가와 소설 사이에 형성된 길항관계를 매우 흥미롭게 포착할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이중성과 그 안에 담긴 다각적인 의미들은 근대적 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치던 19세기 후반에 20대의 몰락 사족 작가가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기존 이념을 수호하고자 하는 복잡한 정황과 깊은 관련을 지니는 것이다.

핵심어 : 난학몽, 한문장편소설, 이중성, 주동인물군, 작가의식

## 1. 서론

悟軒 鄭泰運의 작품으로 알려진 <난학몽>은 국문본<sup>1)</sup>으로 먼저 학계에

1) 4권 4책의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으로서 아세아문화사 간행 『필사본 고전소설전집』5권(1980)에 수록되어 있다.

소개된 후 정창권이 한문본 원본<sup>2)</sup>을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주요 작품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다. 이 작품은 총 29회로 이루어진 장회체 소설로<sup>3)</sup> 북송시대 한언범 일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가정 내 갈등과 왕안석의 신법을 둘러싼 신·구법당 간의 정치적 대립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전반부의 계모와 전실 자식 간의 갈등, 후반부의 처첩 갈등으로 인해 연구사 초기에 여러 학자들이 이 소설을 가정소설로 파악한 바 있다. 이 작품을 학계에 가장 먼저 소개한 김기동이 기존 가정소설의 유형성을 탈피한 새로운 유형의 가정소설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이래<sup>4)</sup> 정종대가 ‘계모형과 쟁충형의 병립구조를 복합시킨 가정소설’로 그 특징을 규정한 바 있고,<sup>5)</sup> 김재용은 계모형 고소설의 유형을 분류하는 가운데 이 작품이 계모형 고소설의 후기형이 지니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sup>6)</sup>

그러나 가정 내적 문제와 더불어 작품의 또 다른 주요 갈등축으로 존재하는 신·구법당 간의 정치적 대립관계로 인해, 이 작품을 단순히 가정소설로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다 복합적인 차원에서 작품의 특성을 추출하고자 하는 논의들도 마련되었다. 왕안석 시대의 신·구법당 대립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은 이유에 주목하여 이 소설이 가정소설이나 가문소설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 소설의 다양한 구조를 결합하여 형식적·주제적 확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경우나,<sup>7)</sup> 역사적 사실의 수용이 정태운이 처한 가정 내적 문제와 당대 현실의 문제를 동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sup>8)</sup>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범주에서 이 작품이 구법당

2) 3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태운전집』1(태학사, 1998)에 수록되어 있다. 국문본에는 없는 서문과 발문이 첨부되어 있어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3) 국문본과 한문본의 권수는 다르지만 전체 장회의 수와 제목은 일치한다.

4)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540쪽.

5) 정종대, 「〈난학몽〉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75, 한국어교육학회, 1991, 198쪽.

6)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6, 149쪽.

7) 김경미, 「〈난학몽〉 연구」, 『이화어문논집』12, 이화어문학회, 1992; 이병직, 「〈난학몽〉의 구성원리와 작가의식」, 『문창어문논집』36, 문창어문학회, 1999; 정창권, 「〈난학몽〉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5.

8) 이기대, 「〈난학몽〉에 나타난 역사의 변용과정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191쪽.

을 긍정적으로 그려 내는 가운데 개인 차원의 도덕 함양을 강조함으로써 친주자주의적 성향을 가장 강하게 보인다고 본 견해<sup>9)</sup>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국문본과 한문본을 비교하여 한문본이 이념적 성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반면 국문번역본은 이야기 전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작품의 서발이나 내용을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식의 특성과 한계를 정리한 학위논문이 제출된 바 있다.<sup>10)</sup> 또한 입신양명과 소설쓰기라는 작가의 이중적 욕망을 통해 이 소설이 19세기 현실의 변이를 담아내고 있다고 파악한 논의도 있다.<sup>11)</sup>

이처럼 그간 <난학몽>에 대한 연구사가 제법 축적되어 작가의 생애나 이념적 지향, 작품의 성격 등이 대체적으로 규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작품 내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작가에 대한 작품 외적 자료 분석이나 작품 구조의 유형적 특징에 주목하는 것만큼의 연구가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통해 계모와 전실 자식 간의 갈등과 처첩갈등이 전·후반부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家長의 부재가 이러한 갈등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이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계모와 전실 자식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주동자들로 시비들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과 지극한 효성의 주체로 그려지는 남녀주인공 가운데 여성의 적극성이 두드러지게 형상화되었다는 점 등이 이 작품의 특성으로 지적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표면적 특성 외에도 이 작품이 지니는 중요한 특징으로서 작품 전면에 내재한 이중성에 주목하고자 한다.<sup>12)</sup> 작품의 내적 분석

9) 조광국, 「19세기 고소설에 구현된 정치이념의 성향-〈옥루몽〉, 〈옥수기〉, 〈난학몽〉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16, 한국고소설학회, 2003, 61~66쪽.

10) 왕비연, 「〈난학몽〉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0.

11) 박은정, 「〈난학몽〉에 나타난 향촌 지식인의 욕망, 그 이중성」, 『한민족어문학』58, 한민족어문학회, 2011.

12) 박은정의 경우에도 이중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 작가적 측면에 주목하여 유가적 입신의 욕망과 소설 창작의 욕망이라는 ‘작품 외적 측면’에서의 이중적 ‘욕망’을 다루는 반면 본고에서는 ‘작품의 내적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이중성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접근 방법과 관점에 있어서 차이를 지닌다. 이로 인해 작품 해석을 비롯하여 작가 정신, 작품의 의의와 한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본고와 입장 차이를 보인다. (박은정, 위의 논문.)

을 통해 요소요소에서 포착되는 이러한 이중성은 결국 작가의 인식 지평이나 현실 대응과도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서 19세기에 한문으로 창작된 장편 소설이라는, <난학몽>이 지닌 복잡한 시대적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전반에 내재된 이중성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구체적 양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논의의 초점화가 필요하리라 여겨지므로 특별히 주동인물군의 형상에 드러나는 이중성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주동인물들은 작품의 핵심 갈등에 관여하면서 궁극적으로 작품의 지향성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므로 그 형상화를 통해 포착되는 이중적 면모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해 봄으로써 작품의 복잡한 이면을 가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품의 분석이나 인용에 있어서는 국문본 <난학몽>을 주자료로 삼고, 序跋文 등의 인용이나 작가의 이념적 발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문본을 보충자료로 활용할 것이다.<sup>13)</sup>

## 2. 주동인물군의 이중적 면모

<난학몽>의 주동인물군은 주인공 가문으로 설정된 한언범 가의 일원들이다. 한씨 가문의 대표자인 한언범을 위시하여 계모의 박해를 효성으로 극복해내는 한난선과 한학선 남매, 한학선과 혼인 후 처침갈등에 의해 고난을 겪게 되는 홍계향, 한언범 가문의 일원은 아니지만 주인공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강한 영향력을 미쳐 작품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형산도사 이창선 등을 들 수 있다.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으로 설정된 인물들이 군자나 숙녀를 대표하는 인격체로 형상화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특히 상층 가문의 이야기를 다

13) 국문본과 한문본을 비교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양자 사이에 내용상의 차이는 없으며, 이야기의 매끄러운 서술을 지향하는 국문본에서는 한문본의 이념성을 드러내는 과도한 언술들이 삭제되거나 축약되었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정창권, 앞의 논문 ; 왕비연, 앞의 논문.)

루는 소설 유형들의 남녀주인공은 인품과 능력 면에서 매우 미화되는 경향이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다수의 작품에서 주인공들을 화석화된 평면적 인물이 아니라 실수와 착오를 거쳐 성장해가는 인물로 그려냄으로써 현실적 개연성을 획득하고 인간사의 보편적 진리를 드러내는 경우가 확인되기도 한다.<sup>14)</sup> 그러나 그 경우에도 주인공들이 시간과 경험의 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가운데 일관성을 가지고 변화해가는 것이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중적인 면모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들이 군자숙녀로서 부족해 보이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주인공 가문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일세대 가장들 경우 초지일관 모범적인 모습을 견지함으로써 아직 불안정한 이세대에게 롤모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15)</sup>

그런데 <난학몽>의 주동인물들은 위의 경우와는 달리 일관성이 결여된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우선 그 양상을 살펴보고 원인이 무엇이지를 따져 이 작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밑거름을 삼고자 한다.

### 1) 적극적 여성 형상의 변질 : 한난선, 홍계향

<난학몽>의 주동인물들 중 우선적으로 주목하게 되는 것이 여주인공에 해당하는 한난선과 홍계향이다. 이들이 여성의 순종적 미덕을 강조하던 당대의 통념과는 달리 적극적인 여성상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유교적 가부장제의 영향 아래 강하고 적극적인 남성상과 대비하여 온순하고 소극적인 여성상을 미화해 온 조선후기 사회의 경향을 염두에 둘 때 한난선과 홍계향이 보여 주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면모는 이 작품의 여성 인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4)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44쪽.

15) <유효공선행록> 등의 작품처럼 불민한 가장에 의해 계후갈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위에서 말하는 모범적 가장상과는 애당초 거리가 있는 것이고, <현씨양옹쌍린기>의 현택지, <옥원재합기연>의 소송, <창관호연록>의 장두 등처럼 완성된 인격자의 모습을 보여 미숙한 자식 세대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들이 다수 등장한다. <소현성록>의 경우 아버지의 빈자리를 어머니인 양부인이 대신하고 있기도 하다.

이 작품은 한언범 부부가 선계에 가서 학 한 마리와 난새 한 마리를 얻어오는 꿈을 꾸고 얻은 쌍둥이 남매인 난선과 학선을 주인공으로 삼아 제목을 <난학몽>이라고 붙이고 있는데, 두 남매 중 난선이 학선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난선을 학선보다 우선시하는 태도는 난선을 앞세우는 작품 제목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난선은 부친 한언범이 청묘법을 반대하다가 정적들의 모함을 입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자 직접 상경하여 황제 앞에 상소를 올리는 적극성을 보이는 인물이다. 남장을 하고서야 바깥 세상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여성적 제약이 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학선보다 난선이 더 과감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처음 상소를 올리러 갈 때는 학선이 계모 최씨에 의해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몸져누운 상태라 불가피한 형편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스스로 조정에 나아가 상소를 올리는 것을 보면 애당초 이러한 형상화가 학선이 아닌 난선에게 의도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지극한 효성을 극대화하여 보여 주기 위해 남성이 아닌 여성주인공을 내세워 불가능한 상황을 효성으로 극복해내는 극적 효과를 마련하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다. 난선은 총 세 번의 상소를 올려 세 번 모두 자신의 뜻한 바를 얻어 내는데, 그 과정에서 그녀의 논리 정연한 언변과 담대함이 잘 드러난다.<sup>16)</sup>

그뿐 아니라 난선은 송향이 난을 일으키자 사촌오라비인 한임에게 나가 싸워 공을 세우라고 독려한다. 싸움의 와중에 송향에게 인질로 잡혀가서도 거짓 항서를 만들어 적을 혼란시키는 계략으로 한임을 도와 승리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이로써 난리 중에 일방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용기와 지혜로 당당히 이를 극복해내는 여성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 난선이라는 여주인공의 형상은 가정 내적 존재로서 순종을 미덕으로 삼는 모습이 아니라 남자들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조정사나 전쟁에 직접 가담하

16) 난선이 아버지의 죄를 변호하면서 자신이 대신 죽게 해달라고 비는 상소의 내용이 나이 어린 아녀자의 소견일 리 없으니 그 배후를 캐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서단이 직접 난선을 문초하고 협박하였으나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자기의 소신을 논리정연하게 펼치며 죽음을 달게 받으려 하자 그 태도에 감동하여 결국 방송하고 만다.

여 자신이 목표한 바를 쟁취해 내는 진취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전반부의 서사가 계모 최씨에 의한 난선, 학선 남매의 고난을 주로 그리는 가운데 난선의 활약상을 부각시키고 있다면 처첩갈등으로 인한 여주인공의 고난을 그리는 후반부의 서사에서는 한학선의 부인 홍계향이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홍계향은 8세의 어린 나이에 조정이 어지러움을 보고 부친에게 주역을 인용하며 벼슬을 하직하고 보신지책을 세우라고 당부할 만큼 당차고 당돌한 인물이다.<sup>17)</sup> 더불어 그녀는 계모에게 쫓겨나 자신의 집에 의탁하던 정혼자 학선을 모친과 오라비가 못마땅하게 여겨 독살하려 하자 도망가도록 주선하기도 하고 자신을 다른 가문에 시집보내려고 하는 데에 저항하며 절개를 지키기 위해 음독자살을 시도할 만큼 절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감함도 갖추고 있다.

혼인 후에도 홍계향은 시부모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하는 당당함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곳에 시집갔으면 어찌 오늘날의 영광을 보겠냐는 시모에게 자신이 절의를 지킨 것은 부귀영화를 바라서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 부모 형제를 저버리고 정혼자를 선택한 이유를 짓궂게 묻는 시부에게 부모 형제간의 은정을 지키기 위해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는 결국 부모 형제에게도 욕을 끼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쳐 감탄하게 만든다. 이처럼 시부모 앞에서 자신의 소견을 당당히 아뢰는 홍계향의 모습은 새색시로서 부끄러워하며 침묵을 미덕으로 삼는 소극적 여성상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그런데 한난선과 홍계향이 보여 주던 이러한 적극성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지 못함으로 인해 작중 인물의 성격에 심각한 파탄이 일어난다. 우선 한씨 가문의 중요한 대소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영향력을 발휘하던 난선이<sup>18)</sup> 홍계향이 첩 위녀의 모함으로 한언범의 오해를 사 죽을 위기에

17) “필연 부친이 봉당의 시비가 장춘 국가이 병들고 몸의 희석이 박도호와 노심초사혹심이라 주역의 혹여스되 천지 변화혹오면 초목이 번성하고 천지 폐식혹오면 현인이 숨는다 혹여스오니 이제 썩을 아라 변통혹와 군자는 멀리 가서 숨을 거시오니 엇지 구구이 즉분을 즉히여 아너즈의 모양을 혹오릿가 원컨디 향곡의 물너가스 조정을 혹즉히시고 운슈의 여년을 마치소서”(국문본 <난학몽> 권지일 260쪽)

18) 부친이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소를 올린 일 외에도 계모를 내치려는 부친을 설득하는 일과 자신이 고난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준 시비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 남편을 동원하여 혼처

처한 상황에서 갑자기 매우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 앞선 서사들로 말미암아 비롯된 기대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난선이 보여준 행동은 홍씨의 죄상을 열거하는 부친에게 “빅번 생각호 오셔 무죄헌 스람으로 원통호게 마옵소서”라고 간략히 간청을 한 후 옥에 갇힌 홍씨를 찾아가 묶인 몸을 풀어 주며 위로하는 정도이다. 마침내 부친이 홍씨를 태장하여 죽이려는 찰나에 이르러서도 “애걸호고 극간호여도 티 부게서 듯지 안는지라”라는 짧은 언급으로 난선의 무력함을 드러낼 뿐이다.

이보다 훨씬 긴박하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조목조목 논리적 이유를 들어가며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난관을 벗어났던 이전의 모습과는 대조적일 정도로 어떤 적극적인 행위도 보여주지 않은 채 쉽게 포기하고 사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의 대표자이자 가문의 대변자로서 부친의 신임을 얻은 존재로 형상화되던 난선이 정작 여성으로서의 동질감을 바탕으로 홍씨를 위해 적극적으로 부친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홍계향 역시 자신에게 닥쳐 온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이전에 보여주었던 성격이나 태도와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기주장이 분명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 앞에서는 당찬 모습을 보이던 그녀가 위녀의 모함에 대해서는 매우 어리숙하게 대처하거나 소극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예컨대 귀신이 들렸으니 이를 물리칠 木人과 축문을 물어 달라는 위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여 시부의 의심은 사는 행위, 의혹 속에 갈등하던 시부가 투기 때문에 위녀를 모함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포기해 버리는 태도 등이 대표적이다.<sup>19)</sup> 은정과 절의를 논할 때 보여준

를 주선하는 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난선은 주도적으로 자기 주변의 일을 처리해 가는 인물이다.

19) “즉시 가서 전후스를 티부게 말술히라 호다가 다시 생각호여 왈 노노이 발명호는 것은 비루호고 효박호 스람의 일이라 이제 니가 췌득호여스니 엇지 모루고 호 말을 근심호리요 천지귀신과 일월신영이 굽어 살피시니 만약 알음이 잇스면 나를 불상이 역이사 발명이 되일 거시오 만일 모르시면 나를 미워호사 죄고의 너실지니 너시면 무엇이 유익호리요 공경호고 효성호야 니 도리나 할 뿐이로다 호고 그만 두니라” (국문본 <난학몽> 권지삼 556~557쪽)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처신과 일관성을 지니려면 자신의 결백을 적극 변호하여 시부의 의혹을 씻어 줌으로써 화근을 제거하고 변민에 빠진 시부의 근심을 덜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막연히 효성과 운명론을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태를 악화시켜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홍계향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체념한 상태에서 나이 어린 아들과 눈물로 이별할 뿐이다. 남편 학선이 돌아옴으로써 비로소 위녀의 모함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데 주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과단성 있는 행동을 보이던 홍계향이 어진 아내, 효성스런 며느리라는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자기 변론의 기회마저도 포기하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상황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 2) 언표와 실상의 불일치 : 한언범, 한학선

이 작품의 중심 가문인 한씨 일가의 家長인 한언범은 “강직하고 영결한” 인물로 소개된다. 일찍이 등과하여 벼슬길에 나갔다가 신법당의 무리가 득세하자 고향으로 물러나 후학을 양성하던 중 쌍둥이 남매를 얻는다. 이후 다시 벼슬길에 나갔다가 청묘법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죽을 위기에 처하나 딸 난선의 상소로 목숨을 부지하고, 유배 생활을 한 후 다시 난선의 상소 덕분에 해배되어 태부 직함을 받고 고향에 거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직접적인 언술이나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한언범이 충직한 인물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가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소설들에서 주인공 가문의 가장이 청렴강직한 도덕군자로 형상화되는 것과 동궤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실제 행적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작중 설정과는 불일치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강직한 충신이자 학문적 스승이며 어엿한 가장으로서의 면모에 부합하는 점이 별로 부각되지 않는다. 목숨을 걸고 신법당에 반대하는 직간을 아낀 점으로 미루어 강직한 성품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기는 하나 그 이후의 사건 전개에서는 어린 딸의 노력에 의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노쇠하여 판단 착오를 일으키며 가내 분란을 자초하는 무능

력하고 변덕스러운 인물로 비춰질 뿐이다. 학선이 출전한 줄 알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학선이 부친을 안심시키기 위해 결안국으로 사신 간 것처럼 거짓 편지를 만들어 보내자 비로소 안심하는 모습은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식에게 공과 私를 구분하여 국가 대신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고 당부하며 사사로운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게 주인공 가문 어른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임을 감안한다면 한언범의 태도는 충직한 신하로서의 위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효성을 다하기 위해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시부모 옆에 머물고 있는 며느리 홍씨를 오해하여 구박하다가 죽이려고까지 하는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충신군자라는 칭호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작중에서는 나이가 들어 충기가 흐려진 것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인공 가문의 일세대 가장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을 보이며 나이가 들수록 포용력을 더욱 넓혀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구차하고 비루한 모습으로 나이를 먹어가며 가내 분란을 일으키는 한언범의 행동을 일시적인 실수로 치부하기는 힘들 듯하다. 즉 그를 충신군자라고 칭하는 언표와는 달리 작품의 실상이 보여주는 한언범은 지극히 평범한 소인배의 모습일 뿐이다.

이와 같은 이상과 실제의 불일치는 남주인공 한학선의 형상화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한학선은 한언범 부부가 하늘에 빌어 천상의 학을 얻는 꿈을 꾸고 낳은 아들로서 “골격이 청슈하고 용모 슈려호야 명월이 동희의 솟는 듯하며 미옥이 곤강의 눈 듯”한 비범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는 어진 성품과 지극한 효심을 지닌 인물로서 문관으로서의 뛰어난 자질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형산도사에게서 장수로서의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제갈 무후의 책을 받아 음양술수와 둔갑장신하는 법까지 달통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완벽한 인간형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자질을 갖춘 것에 비해 정작 한학선이 보여 주는 행위는 영 기대감에 못 미치는 것들이다. 그의 여러 행적들을 종합해 볼 때 그는 주체적으로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인물형이기보다는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나는 수동적 인물형에 가깝다. 계모에게 미움을 받아 매질을 당하고 인사불성이 되어서는 누이 난선의 보살핌으로 몸을 보존하고, 장모와 처남의 미움을 받아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는 정혼자 홍계향과 형산도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sup>20)</sup>, 전쟁터에서도 적군에게 패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거북의 도움으로 살아나 사촌 한임의 구원병에 힘입어 승리를 이룬다.

특히 전장에서 학선이 보여준 행위는 형산도사에게서 병법과 술법을 배운 인물의 행적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만큼 무기력하다. 그는 적군과 제대로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패한 후 일찌감치 포기해 버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

“오복 왈 승패는 병가의 상스라 엇지 한번 피혀다고 괴운이 썩겨 속슈히고 안져 죽기만 바라시오 이는 녹녹한 소장부의 일이라 (중략) 추밀 왈 니가 죽으면 조정의셔 지약잇는 장스을 보니여 도적을 잡으련이와 이제 니가 피혀야 무죄한 스람을 만나 죽여스니 니가 츠마 엇지 다시 국가의 군스을 구혀야 도적을 잡으리요 호고 즉시 남은 군스을 헛쳐 각기 도라가셔 조정의 고흐라 호고 (중략) 추밀이 손의 병괴을 다 일코 말을 달여 도망흐니 담의 군스 오십여명이 쫓는지라 추밀이 오리를 달여가니 압해 디강이 막혀 파도가 흥흥호고 뒤의 군스가 쫓츠오니 스세 급박이라 추밀이 양천탄왈 회계 한학선이 얼어서 시셔을 익고 잘아미 예의를 알더니 신슈불헿호야 군스을 피호고 죽으니 슬푸고 슬푸도다 하나남아 이 엇지호 일이뇨 호고 말게 날여 강의 썩지니”<sup>21)</sup>

수하 장수 오복이 전쟁에서의 승패는 병가지상사이니 다시 싸워 진담을 사로잡을 계획을 세우자고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대원수인 학선은 끝내 싸움을 포기하고 군사들을 돌려보낸 후 적에게 쫓기다가 강에 투신하고 만다.

20) 이 경우에도 홍계향이 위급함을 알려주고 도망갈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반도주하는 것이 군자답지 못하다며 자기를 해하려는 당사자에게 작별인사를 고향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가 겨우 형산도사에 의해 목숨을 건지는 것으로 보아 현실 감각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21) 국문본 <난학몽> 권지사 628~630쪽.

전 과정에 걸쳐 학선의 무용이나 활약이 전혀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장수로서의 기백이나 결단력도 보이지 않는다. 가장 요긴한 순간에 제갈무후의 책을 통해 익힌 술책은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주인공을 문약한 인물로 전락시키고 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sup>22)</sup>

작품 속 모든 사건에서 한학선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모습은 발견하기 힘들다. 전장의 일뿐 아니라 부친을 위기에서 구하는 것도 누이인 난선이 대신하고, 아내 홍계향이 위녀의 모함을 받는 사건에서도 위녀의 간특함을 짐작은 하고 있으면서도 가장으로서 끝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요컨대 한학선은 어질고 효성이 강한 인물임은 분명하나 한 가문의 대를 이을 가장이자 국가 대신으로서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만한 능력은 겸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그를 하늘이 점지한 남 주인공으로서 영웅성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하고자 했던 작품 의도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그의 실제 행적과는 별도로 학선이 순조롭게 관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다가 고향에 돌아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을 통해 작품의 애초 의도가 일반적인 귀족적 영웅형 남주인공을 형상화하고자 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그의 구체적 행적에서는 그러한 영웅성과는 배치되는 모습들이 그려짐으로써 주인공의 형상화에서 이상적으로 부여된 이미지와 실상이 불일치하는 모순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 3) 탈속과 세속의 줄타기 : 형산도사 이창선

형산도사 이창선은 원래 한언범과 동문수학한 사이인데 세상의 부귀공명을 버리고 형산에 들어가 도를 닦으며 신선처럼 사는 인물이다.<sup>23)</sup> 그는

22) 무인의 기질보다는 문인의 기질을 강조하는 대다수의 소설들에서조차 한학선처럼 무기력하고 나약한 남주인공이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23) 형산도사가 작품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그린 다음의 내용이 그의 탈속적이고 신비한 면모를 잘 보여준다.

“벽계산 홍슈 스이로 한 선관이 흰스슴을 타고 불근 옷슬 입고 구성관을 쓰고 명월피을 차고 무지기리는 압을 인도호고 깃일손은 뒤의 섯스며 동즈 혼 썩이 옥통소를 부니 귀 소리 청양호야 중천의 늑는 듯하더라” (국문본 <난학몽> 권지일 235~236쪽.)

앞날을 꿰뚫어 보는 예지력과 세속인이 지니지 못한 능력을 겸비한 異人으로서 한언범 가문의 중대한 위기마다 개입해 큰 도움을 준다. 그의 빈번한 개입으로 인해 형산도사의 도움이 없이는 한씨 가문의 존속이 어렵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맨 먼저 형산도사는 한언범 부부에게 자식을 접지해 달라는 기도를 올리라고 권유해 난선과 학선 쌍둥이 남매를 얻게 해줌으로써 가문의 대가 끊이지 않게 도와준다. 無子라는 가장 근원적인 고민을 해결해 줌으로써 고독한 한씨 가문의 존재 기반을 형성하고 앞으로 번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 형산도사에게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생명을 주는 일은 선계의 옥황상제 소관이지만 기자치성을 통해 꿈속에 천상체험을 하게 되는 일이 도선적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는 형산도사의 영향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앞으로 닥쳐올 불운을 예언하면서 天命을 順受하라고 일러주고 한언범과 영별을 고한다.

그러나 그의 한씨 가문에 대한 조력과 영향력 행사는 영별을 고한 후에도 그치지 않고 지속된다. 난선이 부친을 구하기 위해 상소문을 올리러 황성으로 가는 도중에 발병이 나서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게 되자 이를 미리 내다 보고 여승 혜청을 보내 회복약을 주기도 하고, 홍씨 가문 사람들에게 쫓기는 학선을 구해다 액운을 피하게 하면서 병법과 술법을 가르치기도 하며, 홍계향의 죽음을 예견하고 음독자살한 시신을 구해 와 소생시키기도 한다. 계모 최씨의 소생 학년조차도 형을 찾아다니다가 산중에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형산도사가 나타나 집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이후 형산도사가 갑자기 작품의 문면에서 사라진 후 말미까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작품에서 형산도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만한 위험요소가 사라졌기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서사가 절반 가까이 남아 있고, 그 와중에 홍계향이 위녀의 모함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하거나 학선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내몰리는 등의 시련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소불위의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며 한언범 가문에 세세한 도움을 줌으로써 작품의 비현실적 분위기를 주도하던 형산도사가 갑자기 문면에서 사라지자 이후의 서사는 급격히 현실적인 맥락 안에

서 진행된다. 대부분의 사건이 현실적 개연성을 지닌 채 마무리되는 가운데 학선이 거북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는 장면에서만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된다. 그러나 이는 전에 학선이 살려 준 거북의 보은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동생 학년이 과거에 은혜를 베푼 사람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나는 삽화와 더불어 작품이 강조하는 積善의 대가를 제시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처럼 절대적 권위자로 기능하던 형산도사가 중반에 자취를 감춤으로써 작품의 분위기가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매우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형산도사가 지니고 있는 이중적 속성으로 인해 그의 형상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가 궁금해진다.

형산도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중적 성격을 내포하는 흥미로운 인물이다. 우선 그는 塵世의 공명을 버린 탈속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한언범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실에 개입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異人 조력자를 등장시키는 소설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단순히 주인공들의 목숨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념적인 차원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복잡한 문제를 내포한다.

특히 그가 가치로운 것으로 제시하는 이념들이 유교적인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를 이어 가문의 영광을 빛내며 조상의 향화를 받드는 것, 효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라는 것, 입신양명하여 문호를 빛내라는 것, 출장입상하여 국가를 구하라는 것, 명철보신하는 처세를 익히라는 것 등이 형산도사의 입을 통해 주인공들에게 전달된 가르침인데 이는 탈속적 지향을 지닌 도사의 깨우침이라기보다는 유교적 스승의 훈교에 가까운 내용들이다.<sup>24)</sup>

요컨대 이 작품은 도가적 인물을 통해 유교적 이념을 설파하고, 탈속적 인물을 통해 현실을 움직이는 역설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형산도사의 이러한 이중적 면모는 그의 호칭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그를 단순히

24) 다수의 고전소설들에서 도승 등의 異人이 등장하여 주인공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현실에 개입하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 대부분이 조력자로서 기능할 뿐 주인공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이념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형산도사라고 지칭하지 않고 매우 빈번히 ‘형산도사 이창선’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세속을 떠나 얻은 이름만이 아니라 유학자 시절의 세속명을 계속 병치시키는 것은 탈속과 세속의 경계를 오가는 그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sup>25)</sup>

### 3. 이중성의 의미

<난학몽>의 주동인물들에게서 발견되는 이중성은 이 작품의 작가가 창작 과정 중에 의식했건 의식하지 못했건 여러 가지 모순적인 상황들에 놓여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작품의 이중성이 내포하고 있는 모순과 고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작가 정태운의 상황이나 인식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탐색 과정을 통해 19세기 향촌의 몰락한 사족으로서 한문이라는 수단을 통해 장편소설을 창작한 작가와 그 작가가 마주했던 당대 현실의 긴장 관계가 보다 세밀하게 포착될 수 있을 것이다.

#### 1) 이념논리와 현실논리의 간극

<난학몽>의 작가 정태운은 한문본의 서문<sup>26)</sup>에서 옛 성인이 天理에 따라 人倫을 밝혔으니 남녀 모두 三綱五倫의 소중함을 알고 도리를 지켜 賢人君子와 淑女烈婦의 정성을 다해야 하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세상의 공리를 좇는 무리들을 탄식하여 이 책을 짓는다며 작품 창작 동기를 밝히고 있다.<sup>27)</sup> 한편 발문에서도 다시 이 책을 지은 의도가 무엇이나는 질문

25) 초월적 공간의 도선적 인물들이 대부분 ‘도사’의 칭호로 명명되는 데 비해 이처럼 현세의 이름을 재차 강조하며 제시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

26) 한문본 <난학몽>에는 ‘鸞鶴夢并序’라는 서문과 ‘或曰’로 시작하는 질문에 답하는 발문 형태의 글이 첨부되어 있어 작가의 창작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27) “고로 예전 上古시대에는 聖神이 먼저 나와서 天理를 따라 人倫을 밝혔다. (중략)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것, 임금이 신하에 대한 것, 지아버가 지어미에 대한 것을 三綱이라 하고, 부자의 친함, 군신의 의로움, 부부의 구별, 장유의 질서, 봉우의 믿음을 五常이라 하니, 천지와 더

을 만들어 놓고 권선징악의 도를 전하기 위함이라 답하고 있는데<sup>28)</sup> 작가가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삼강오륜의 실행 여부에 있으므로 서문에서 밝힌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하겠다. 즉 정태운은 유교 이념의 강조를 통한 도덕 교화를 <난학몽>의 창작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작품 속에 구체화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유교의 핵심 덕목인 충효열이다. 군신의 도리와 부자의 도리, 부부의 도리를 작중 인물들과 그들이 겪는 사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작가 의도가 성공적으로 작품 형상화 속에 녹아들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이 든다. 앞서 살펴 본 주동인물들의 일관성 결여와 그로 인한 이중적 모습들도 이와 관련될 것이다.

작중에서 주인공들을 통해 가장 강조되는 덕목이 효이다. 난선, 학선은 효성이 지극한 인물로서 그들의 행위는 효의 실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29)</sup> 그런데 효행을 완수하기 위해 부여된 자질이 다른 상황에서는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우선 난선의 적극적인 행동들은 부친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명목 하에 긍정되고 미화되었다. 그런데 흥계향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과 같이 난선의 적극적 개입이 부친의 뜻을 거스르는 입장이 되자 논리정연함으로 상대를 설

붙어 서로 처음부터 끝을 함께 하여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고로 아버이를 사랑하면서 어른을 공손히 섬기고, 형을 공경하면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며, 친하에 거하면서 大道를 행하고, 義가 있는 곳인즉 몸을 공손히 하여 仁을 이루는 것이 장부의 일이다. 그 덕을 유순히 하고, 거동을 단정히 하며, 효로써 시부모를 섬기고, 공경으로 남편을 섬겨, 한 집안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연후에 비록 어그러지고 불행한 변을 당하더라도 정일하게 義를 따르는 것이 부인의 일이다. (중략) 지금 세상의 공리를 쫓는 무리들을 탄식하여, 이 책을 저술하여 한 때의 뜻을 부친다.(故昔在上古 聖神首出 因天理而明人倫 (중략) 父之於子 君之於臣 夫之於妻 是曰 ‘三綱’ 父子之親 君臣之義 夫婦之別 長幼之序 朋友之信 是曰 ‘五常’ 所以與天地相爲終始而不可易者也 是故愛其親而悌其長 敬其兄而忠其君 居廣居行大道 而義之所在 則捐身而成仁者 丈夫之事也 柔順其德 端莊其儀 孝事舅姑 敬事君子 以宜一家之人 然後雖遭悻戾不幸之變 靜一而從義者 婦人之道也 (중략) 俯嘆今世功利之輩, 著述此書, 以寓一時之意云爾.) (한문본 <난학몽> 11~12쪽.)

28) 발문에서는 或者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놓고 문답하는 형식을 통해 작품 창작에 대한 작가의 辯을 밝히고 있다.

29) 흥계향의 경우에도 시부를 모시기 위해 학선의 부임지를 따라가지 않은 채 머물러 있다가 해를 당하며, 시부가 근심할 것을 염려해 학선의 출정 사실을 감추어야만 했기 때문에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들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시부모에 대한 효성이 우선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해 내던 진취적 모습 대신 눈물로 호소하다가 부친의 뜻에 따르는 순종적인 모습으로 변질된다. 이는 작가의 의도가 가부장제 이념의 편견을 넘어서는 적극적 여성 인물의 형상화를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니라 효의 실현과 그 과정의 극적 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여성의 적극성을 필요로 했던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홍계향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정혼자를 살리고 절의를 지키기 위해 적극성을 발휘하던 홍계향이 첩의 모해와 시부의 오해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만 것은 그녀의 적극성이 자신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열과 효의 실행이라는 목적을 위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화하자 일관성을 잃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여성의 미덕을 강조하는 쪽으로 옮겨간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여주인공 형상화는 궁극적으로 작가의 여성 인식에 내재한 모순을 드러낸다. 정태운은 발문을 통해 여성의 능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도<sup>30)</sup> 그들의 인간적 고뇌와 권리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sup>31)</sup> 여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인간평등성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에 입각한 국가 질서의 유지라는 봉건적 이념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적극적 역할도 효녀와 효부, 혹은 열녀라는 유교적 이념 안에서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작품 전개 과정에서 남성의 무능력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도 이를 통해 제도적 모순을 비판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 점과 연결 지어 생각할

30) “一篇 三卷 中에 婦人의 일을 실은 것이 많고 남자의 일을 서술한 것이 적은 까닭이 무엇인가?(一編三卷之中 載婦人之事多 述男子之事少 其故何也)”

“一婦가 바르면 一家가 바르게 되고, 一家가 바르면 一國이 바르게 되며, 一國이 바르면 天下가 바르게 된다. 이로써 말하자면 天下는 一國으로 근본을 삼고, 一國은 一家로 근본을 삼으며, 一家는 一婦로 근본을 삼는다. 그런즉 부인은 실로 친하의 근본이요, 국가의 기본이다. 이것이 한 편의 책에 부인들의 善惡을 많이 실어 권선징악의 뜻을 은밀히 담은 까닭이다.(一婦正一家正, 一家正一國正 一國正天下正 由此言之 天下以一國爲本 一國以一家爲本 一家以一婦爲本 然則婦人者實天下之本 家國之基也 此一編之書 所以多載婦人之善惡 而微含勸懲之意也)” (한문본 난학몽 382~383쪽.)

31) 왕비연의 논문에서도 작가가 여성을 긍정적으로 그리고자 하면서도 내면의식에 있어서는 남녀차별적인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을 지적한 바 있다.(왕비연, 앞의 논문, 95~98쪽) 그러나 그의 경우 그 근거를 무능한 남성들은 순조롭게 성공하고 능력 있는 여성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형상화하는 작가의 불공평한 태도에서 찾고 있는데, 본고에서 주목하는 바는 그와 같은 표면적 이유 너머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통해 남성의 무능력을 드러내면서도 남성적 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는 모순, 그리고 그러한 남성중심의 지배 이념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모순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관은 작가의 보수적 현실 인식과도 관련될 것이다. 현실의 모순을 감지하는 작가의 관점이 남성중심적 유교질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19세기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유교적 봉건 체제를 반성적으로 검토하려는 태도가 결여될 수밖에 없다. 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유교적 질서에 기반한 가문과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적 가치로만 활용되는 것은 인간의 평등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싹트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이념적 허구성을 드러내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sup>32)</sup>

한편 학선의 경우 또 다른 측면에서 이념의 허구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는 이상적 군자상으로 그려지는 가운데 무엇보다 효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데, 문제는 그의 효행이 현실적 맥락 안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공허하거나 교조적인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학선을 표상하는 최대의 가치인 효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의 실제 모습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가장이자, 장수로 그려질 뿐이다. 인자하고, 순종적이고, 부모에 연연하는 것 등등 효자에 부합하는 형상화에 집착하다 보니 그것이 책임감과 결단력을 보여야 하는 가장이자 충신으로서의 이미지와는 배치되는 부조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난을 평정하기 위해 출정을 하면서도 오로지 부친 걱정애 가짜 편지를 만들어 보내는 일에 신경을 쓰는 그의 행위가 지극한 효성을 드러내 주는 것 이상으로 공보다 사를 앞세우는 신하,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을 부각시키게 된다.

요컨대 효자의 형상화에 집착한 나머지 그것이 국가적 차원이나 가정 내

32) 이 점에서 본고는 작가가 여성세계의 현실적 변화를 직시하고 여성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드러내고 있다고 파악한 선행연구(박은정, 앞의 논문, 52쪽)와 입장을 달리 한다. 작가가 여성을 중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 있는데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비해 여성적 공감이나 여성들의 입장에 대한 관심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적 공감이 두드러지는 국문장편소설들의 경우와 비교하면 <난학몽>의 여성인식이 지니는 한계를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에서 부작용을 빚어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작가는 이와 같은 효행의 강조를 통해 개인-가정-국가로 이어지는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역설적으로 맹목적 효행이 가정과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함으로써 그 질서의 유지에 균열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현실의 상황과 인간사의 세밀함을 고려하지 못한 이념의 강조는 현실 능력의 부재를 노출하며 역으로 이념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반작용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이 작품은 현실 맥락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인물이나 입장 차이에 대한 이해보다,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가치의 추구에 더 큰 비중이 주어짐으로써 인물들이 현실논리 속에서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타당성과 개연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면 모순되어 보이는 상황들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남녀주인공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거나 중요 자질을 상실한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념에 안주하는 인물들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퇴보하게 된다는 진리와의 상통하는 것으로서 작가의 현실 인식이 놓인 한계 지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2) 몰락한 향촌사족의 이중적 出處觀

주동인물들의 이중적 모습에서 포착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 중의 하나로 정치적인 부분을 들 수 있다. 작품 초기에 한언범은 간신배에 의해 조정이 시끄럽게 되자 벼슬을 내놓고 고향에 은둔한 처사로 그려진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벼슬길에 나갔다가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가 벼슬길에 나가고 물러나는 데 있어서 일관된 신념을 보이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상반되는 태도로 임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젊은 날 등과하여 황제의 총애를 받아 대교, 중승, 점검의 자리를 지내며 명망을 날리던 그는 간신들이 득세하여 자신에게 교수관을 시키자 “자력으로 막지 못함을 짐작하고 벼슬의 늑지 안코” 호계산에 들어가 처사의 삶을 자청한다. 그런데 얼마 후 여전히 간신배가 득세한 상황에서 어사

벼슬을 받고 다시 정계에 진출한다. 이 때 조카 한임이 “이제 간신이 그제 잇고 현신이 만이 비소의 갓스오니 당논의 지앙이 염여로소이다”라고 만류 함에도 불구하고 한언범은 “니 드른즉 출신은 스스로 호야 공스를 폐치 안는다 호여스니 엇지 몸을 악겨 느라을 불고호리요”라며 어린 자식들을 계모에게 맡겨둔 채 황성으로 떠나버리고 만다. 동일한 상황에서 전혀 상반된 대응 방식을 보이는 것이다. 즉 出仕에 대해 일관성을 결여한 채 주관적인 판단 아래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일차적으로 가정 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을 발생시켜 난선과 학선의 효행을 그려나가야 하는 작품 내적 논리에 따른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작가의 出處에 대한 애매하고도 이중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파악된다. 정태운의 집안은 사대부 가문이었으나 정태운 가까운 시기에 이르러서는 증조부가 생원시에 합격한 것 외에 조부대 이후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없어 정치적으로 몰락한 처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3)</sup> 그러나 선대에는 부제학, 대사성을 지낸 바 있고, 정태운도 <난학몽>과 시문집 『오헌산고』를 남길 정도로 문학적 소양이 있었으므로 사대부로서의 정치적 욕망을 완전히 버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과 작가의 욕망이 작품 속에 투영되어 한씨 가문을 통해 형상화되었을 가능성은 몰락 양반이나 소외된 지식인층이 소설을 통해 失勢 회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 맥락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형산도사 이창선이 보여 주는 탈속과 세속 지향의 이중적 면모는 작가의 이러한 이중적 욕망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출사의 길이 좌절된 작가에게 차라리 그러한 현실을 초월하여 속세를 떠나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 욕망과, 반대로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욕망이 상호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탈속의 도선적 이미지를 차용하면서도 유가적 가치들을 옹호하며 속세의 삶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형산도사의 행적과 맞물린다.

33) 정창권, 앞의 논문, 6쪽.

이처럼 인물들의 이중적 형상에 당대 사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작가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라면 한언범의 은거와 형산도사의 탈속에 대한 미화나 동경은 결국 현실적 무력함에서 비롯된 도피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이는 功利를 좇는 무리를 개탄한다는 서문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그려낸 작품 세계가 매우 구체적이고 세속적인 성공담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sup>34)</sup> 이와 더불어 탈속의 존재를 속세의 질서 유지에 적극 동원하고 있는 것은 작가가 현실 세태의 부조리에 유교 이념의 재정립으로 대응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인식한 결과로도 보인다. 즉 이념의 재정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초월적 힘의 개입에 의해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합리성을 지향하는 儒家로서의 작가의식과 충돌을 일으키는 가운데 작품 후반부에 형산도사를 퇴장시키면서 현실적 맥락 안으로 급격한 선회를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문제의식은 있으나 전망은 부재한 상황 속에서 현실 개조와 탈속 지향,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으로서의 현실 논리와 초월적 힘의 개입 등의 상반된 유혹과 선택 앞에 흔들리는 작가의 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과연 작가가 지닌 정치관은 어떤 것이었을까 궁금해진다. 우선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송나라 신법 시행기로 설정하고 구법당의 노선을 지지함으로써 주인공 가문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35)</sup> 왕안석의 청묘법 시행은 비록 실패한 정책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 개혁적 측면은 인정받을 만한 것이었다.<sup>36)</sup> 조선의 사대부들은 대체로 왕안

34) 작품 후반부에 명사들의 잔치 모임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내용 전개와는 별 상관 없이 언급되는데 불구하고 잔치에 참석한 십여 명의 당대 명사들을 일일이 직위와 이름을 모두 거론하는 태도나 말미에 한씨 가문의 자손들이 성공한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구체적 관직명을 세세히 제시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35) 송대 신·구법당의 대립을 시대적 배경으로 차용한 이유를 조선의 정치적 현실을 우의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으나(김경미, 앞의 논문, 4쪽; 이병직 앞의 논문, 139쪽) 작품이 창작된 19세기의 정치적 상황은 세도정치의 폐해가 심각했던 만큼 당쟁을 우의적으로 표현할 시점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본고에서는 이와는 각도를 달리 하여 작가가 구법당의 인물들을 긍정적으로 평하는 당대 유가들의 통념을 계승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고 법치보다 덕치를 중시하는 입장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석의 신법을 법치주의라고 규정하며 배척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임병양관 후 덕치주의의 이상론에 입각한 체제 유지가 심각한 도전을 받으면서 진지한 반성이 촉발되는 가운데 이익이나 체제공 등에 의해 왕안석에 대한 옹호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37)</sup>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국내·외에서 발견되는 근대적 징후들로 인해 봉건적 체제에 균열이 일던 19세기 후반에 구법당을 지지하며 혁신파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작가의 선택은 안일한 보수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신법당의 인물들을 도덕적으로도 파렴치한 악인들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변화한 시대와 달라진 인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가장 보수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위성에 부응할 만큼의 현실적 대안이나 구체성은 결여되어 있음이 작품 내용을 통해 드러난다. 작중에서 주인공을 비롯한 구법당의 보수적 인물들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양상에서는 장기간 수난을 당하며 정치적인 무능력을 노출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여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는 안목의 부재와 관련될 것이다. 구체성에 입각한 논리적 대안 없이 당위론만으로 구법당을 지지함으로 인해 현실적 대응 능력을 갖춘 인물의 창출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태운이 <난학몽>을 20세 무렵에 창작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향촌의 나이 어린 보수적 지식인이 현실인식이나 정치인식에 있어 미숙한 상태에서 변해가는 세태를 개탄하며 소설을 통해 울분을 토로하고자 하였지만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몰락한 향촌 사족으로서 작가 정태운이 당면했던 현실적 고민들과 그로 인한 이중적 욕망이 작중 인물들의 이중성 속에 투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충신이라고 지칭되면서도 아무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는 주인공들과, 탈속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에 개입하며 유교적 가치들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도사와 같은 인물형상을 통해 자신의 현실 기반과 정치로 표상되는 사회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작가의 고민들을 읽어

36) 제임스 류, 『왕안석과 개혁정책』, 지식산업사, 48쪽.

37) 정병설, 「조선후기 정치현실과 장편소설에 나타난 小人의 형상-〈완월회맹연〉과 〈옥원제합기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4, 국문학회, 2000, 247~248쪽.

낼 수 있다. 그러나 시대 변화를 심각하게 포착하여 대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보수적 통념에 입각한 한계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 3) 관습적 서사장치와 작가의식의 충돌

19세기의 한문장편소설을 창작한 작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소설을 통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설의 내용적 측면뿐 아니라 기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했을 것이다. 19세기에 창작된 다수의 소설들에서 유형적 습합이 발견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시기 한문장편소설의 작가들 역시 당대에 인기를 끌었던 국문소설 유형의 적극적 수용과 한문학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한문 글쓰기 양식들을 소설에 차용하고 있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난학몽>의 경우에도 작가가 남긴 발문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고민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或曰’로 표현되는 물음에 작가가 답하는 형식의 발문에서 작품의 창작 동기나 창작 방법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데 소설 작법에 대해 고심한 흔적들도 보인다. 그 중 “이에 흥의 단서가 되는 이야기를 모방하고 韓通의 절의에 의거해서, 혹은 新語를 지어내고 혹은 옛 전적들을 취하여, …… 한 편의 책을 지은 것이니”<sup>38)</sup>라는 대목을 통해 그 역시 다른 작가들과 비슷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소설을 창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이야기나 전적들을 참고하는 방식이 모방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당대 소설의 관습적인 구조나 장치들을 활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요컨대 다양한 글쓰기 양식들을 차용하여 작가의 문필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난학몽>의 창작 과정에도 투영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가는 국문장편소설의 가문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사건들,<sup>39)</sup> 예를 들

38) “乃倣興瑞之說話 據韓通之節義 或撰出新語 或摘取古籍 (….) 著成一編之書者” (한문본 <난학몽> 378쪽.)

39) 선행연구들 중 이 작품을 가정소설의 범주에 넣어 다룬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계모와 전실 자식 간의 갈등, 처첩갈등이 이 작품의 핵심갈등으로 등장하는 것에 연유한다. 그러나 이 작

어 후실에 의한 전실 자식들의 박대와 자식들의 효행, 정치권에서의 충신과 간신의 대결구도, 가문 내 처첩 간의 갈등 등을 차용함과 동시에 영웅소설적 요소 역시 끌어들이고 있다.

그런데 작가가 작품을 통해 담아내고자 하는 이념과 이를 위해 형상화된 인물들의 성격이 그러한 관습적 장치들과 성공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관습적 서사 장치의 차용으로 인해 형성되는 작품 논리와 작가의식에 의한 인물형상이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주동인물군의 예를 통해 확인한 것과 같은 이중성과 불일치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한학선의 경우이다. 효자로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남주인공 한학선에게 군담영웅소설의 구조가 결합되고 있는데<sup>40)</sup> 이로 인해 학선의 영웅적 면모가 부각되기보다는 오히려 작품의 논리적 일관성 결여를 노출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영웅들의 행적을 답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효의 화신으로 규정된 학선의 형상에 적절히 덧입혀지지 못함으로써 병법과 도술의 습득이라는 관습적 장치와 전장에서 보여주는 실제 모습이 전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작품 속에서 작가가 의도한 효자의 형상과 영웅소설이 요구하는 관습적 영웅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형산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선적 성격의 초월적 존재를 등장시켜 주인공 가문의 일원들을 돕고 이를 통해 그들이 천명을 타고난 존재임을 강조하는 내용은 국문소설에서 관습적으로 활용되는 장치이다. 그런데 <난학몽>의 경우 이러한 관습을 차용해 형산도사를 형상화하면서 유교적

품에서 그리고 있는 계모와 전실 자식 간의 갈등은 <장화홍련전> 등의 가정소설처럼 계모를 악인의 형상으로 그리고 정치하는 것과는 차별화된다. 최씨가 시비들의 모함에 의해 자식들을 구박하기는 하지만 후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회복하는 것은 <완월회맹연>의 소씨의 경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문장편소설의 화소에 더 가깝다. 처첩갈등에도 시부에 대한 효행의 내용이 결부되어 있어 단순한 쟁쟁담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승복 역시 처첩갈등형 소설 중에서 가정소설 유형과 가문소설 유형을 변별하면서 부자관계 축을 중시하여 가계 계승의 실현과 가부장적 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가문소설의 특징임을 밝힌 바 있다.(이승복,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인, 2000, 169쪽)

40) 학선이 계모의 박해로 인해 집을 떠나 시련을 겪다가 장인의 도움을 받지만 처가 식구들에 의해 다시 위기에 빠졌다가 형산도사의 구원으로 병법과 도술 등을 연마하고 출정하여 공을 세우게 되는 내용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와 부합한다.

도덕교화를 강조하고자 하는 작가의 자의식이 강하게 투영되어 도사의 성격이 변질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당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소설들의 기법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고자 하는 욕구와 소설을 통해 이념적 도덕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도 이 작품의 이중성을 야기하는 중요한 이유라 하겠다. 그런데 이는 목적의식의 과잉이 빚어내는 오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작가가 능숙하게 소설을 구조화하지 못한 탓으로도 보인다. 즉 이러한 모순과 충돌이 소설 기법 면에서의 미숙함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우선 <난학몽>에는 상당히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한다.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갈등 구조에 주목하여 주로 계모 이야기와 처첩갈등 두 가지를 논의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의 신·구법당의 대립을 추가하는 정도였지만 이 외에도 한언범의 조카인 한임의 혼인과 관련된 사건, 왕충이 자신의 아들과 난선을 혼인시키려는 사건, 한임의 부친이자 한언범의 종형인 한입성의 자살미수 사건, 난선과 한임이 송향의 난을 겪는 사건, 학년의 혼인 관련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이 결구되어 있다. 국문본으로 4책에 지나지 않는 비교적 짧은 분량 속에 이와 같이 다양한 사건들을 배치해낸 작가의 솜씨는 일단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복잡한 사건 전개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너무 많은 사건의 설정이 때로는 작품의 긴밀성과 논의의 집중을 저해하면서 복잡하고 난삽한 느낌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특히 한임의 부친인 한입성이 그리 심각하지 않은 위기 앞에서도 자살을 시도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져 숨어 지내는 사건 등은 작품의 주제적인 면에서나 구조적인 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충신이라고 지칭되면서도 위기 앞에서 자살을 도모하는 나약하고 패배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충효에 입각한 유교적 덕목을 중시하는 작품 주제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긴밀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삽화로써 내용을 산만하게 만드는 역기능을 한다.<sup>41)</sup> 이는 다양한 이

41) 이와 더불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선인군의 남성 인물들 중에 무능하고 나약한 인물형이 많

야기를 펼쳐 보이고 싶은 작가의 의욕 과잉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때문에 이 작품이 핵심 갈등과 부수적 갈등을 선별하여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긴장과 이완의 효과를 얻어내는 구조적 묘미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소설을 통해 문예적 소양을 펼치고자 한 작가의 실험 정신이 관습의 모방에 기초한 의욕적 작품을 산출해낼 수 있는 토대가 되었지만 관습적 서사장치와 작가의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인물의 성격이나 작품 논리에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소설 관습을 차용하여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 의욕이 한정된 지면과 기법적인 측면에서의 미숙함으로 인해 서사의 효과적인 구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 4. 결론

19세기 후반에 정태운에 의해 창작된 한문소설 <난학몽>은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여타의 한문장편소설과 마찬가지로 한문학적 소양을 갖춘 작가가 당대에 유행하던 국문소설의 요소들을 차용하며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한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읽다 보면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듯한 이중성과 자주 마주하게 되는바 그것이 작가가 처한 복합적 상황과 그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작가의식을 반영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중적 면모는 작품 내적 원리에 준거할 때는 소설적 완성도를 떨어트리는 부정적 측면으로 파악될 수 있지만,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한 시대의 작가와 소설 사이에 형성된 길항관계를 매우 흥미롭게 포착할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근대적 변화의 물결이 소용

---

은 것도 몰락 사족으로서의 작가가 놓인 현실적 상황이나 그 안에서 형성된 정체성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인 승리와 영화를 그리고자 하는 의식과는 별도로 그러한 승리를 추동해내는 인물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성공적인 형상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작품의 실상이 몰락사족으로서 작가가 지닌 이상과 당면한 실제의 괴리라는 이중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치던 19세기 후반의 시대 상황에 대해 20대의 몰락 사족인 정태운은 기존 이념의 수호라는 보수적 방법으로 대응한다. 그러면서도 그가 선택한 도구가 소설이라는 사실이 이미 이념이 시대를 지배하는 무기가 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이중성과 그 안에 담긴 작가의 흔들리는 자화상도 그러한 어긋남으로부터 비롯된다 하겠다.

19세기의 조선 사회는 내외적으로 강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서구 열강과의 접촉을 통한 사회·문화적 충격을 겪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하층민들이 민란을 통해 저항을 표출하는 가운데 지배층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사상적인 면에서 조선의 중세적 질서를 지탱했던 성리학의 영향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유교적 사유에 기반한 양반 중심의 지배 체제 역시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선진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체제의 모순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해졌다.

소설사의 전개에서도 세태풍자 소설과 판소리계 소설, 우화소설, 가정소설, 한문단편소설 등을 통해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며 현실 비판적인 의식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다수 창작되었다. 한편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소설의 대중적 인기와 힘입어 상층의 지식인 작가들이 국문소설의 양식을 수용한 한문장편소설들을 창작하였다. 한문학적 지식 기반을 중시하는 계층에서 국문소설의 서사 양식을 빌어 문필력을 발휘하고자 한 사실은 그간 축적되어 온 국문소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징표가 된다.

<난학몽> 역시 그러한 시류 속에 산출된 작품으로서 당대 소설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한문학의 관습을 넘어 소설이라는 양식을 차용하는 선진성이 이념적 강화라는 보수적 작가의식과 충돌함으로써 당대의 시대상을 좀 더 사실적으로 포착하고 그 안에서 시대적 모순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비단 <난학몽>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기에 창작된 다수의 한문장편소설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한계이기도 하다.

현상적인 차원에서 현실의 문제들을 포착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기는 하되 그 해결책을 유교의 이상적 실현과 가부장제의 강화라는 중세적 질서에 기대어 모색함으로써 근대적 징후들을 드러내는 시대 변화의 방향성을 읽어 내지 못한 채 보수적 차원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 작품을 통해 이념적 교화를 달성하고 싶었던 작가 의도와는 별개로 19세기의 현실과 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으로 인해 작품 속에서 변화하는 현실 앞에 무기력해진 유교 이념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작가가 의도한 바와는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념 논리나 작품 논리로 제어할 수 없는 시대의 힘이 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이 <난학몽>이라는 작품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드러내준다는 측면에서 소설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님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적 의미와는 별개로 이 작품 자체가 드러내는 모순과 한계 역시 객관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9세기 한문장 편소설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특징일 수도 있는 시대 논리로 작품을 과대평가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난학몽>이 지니는 내적 모순과 충돌들을 살피고 그 이유와 의미를 추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가 좀 더 균형감 있게 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국문본 <난학몽>,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5, 아세아문화사, 1980.  
 한문본 <난학몽>, 『정태운전집』 1, 태학사, 1998.

## 2. 단행본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6.  
 제임스 류, 『왕안석과 개혁정책』, 지식산업사, 1991.  
 이승복,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인, 2000.

## 3. 논문

김경미, 「<난학몽> 연구」, 『이화어문논집』 12, 이화어문학회, 1992, 593~619쪽.  
 박은정, 「<난학몽>에 나타난 향촌 지식인의 욕망, 그 이중성」, 『한민족어문학』 58, 한민족어문학회, 2011, 35~77쪽.  
 왕비연, 「<난학몽>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0, 1~115쪽.  
 이기대, 「<난학몽>에 나타난 역사의 변용과정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189~212쪽.  
 이병직, 「<난학몽>의 구성원리와 작가의식」, 『문창어문논집』 36, 문창어문학회, 1999, 1~21쪽.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1~187쪽.  
 정병설, 「조선 후기 정치현실과 장편소설에 나타난 小人의 형상-〈완월회맹연〉과 〈옥원재합기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 국문학회, 2000, 231~259쪽.  
 정종대, 「<난학몽>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 75, 한국어교육학회, 1991, 175~200쪽.  
 정창권, 「<난학몽>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5, 1~82쪽.  
 조광국, 「19세기 고소설에 구현된 정치이념의 성향-〈옥루몽〉, 〈옥수기〉, 〈난학몽〉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6, 한국고소설학회, 2003, 45~70쪽.

## The Meaning of Duplicity of Protagonist group in <Nanhakmong(鸞鶴夢)>

Lee, Jee-ha

<Nanhakmong(鸞鶴夢)> is a long novel written in Chinese letters by Jeong, Tae-un in late 19th century. It exposes duplicity in many sides such as the figuration of character, the process of contents, author's consciousness etc. For that reas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spect and the meaning of duplicity focused on the protagonist group.

Heroines of this novel are figured as a very progressive character more than heroes. However they can not maintain consistency and they change their character to passive way because of author's stand based on filial piety. Heroes are symbolized as a dutiful son and a royal retainer. However they shows incompetent behavior in face of danger. Another main character, Hyungsandososa who gives much help and has an influence on hero's family intervenes in the common world in spite of being an unworldly priest and he insists on confucian ideas in spite of being a Taoist.

Above duplicities are caused by following reasons. First, there is discordance between author's purpose emphasizing confucian ideas and the figuration of Character based on realism. Second, author's duplicate desire influences on a view of the world and a political view, so he makes characters who are conflicting between reality and unreality, secularism and unworldliness, an ideology and a fact. Third, this novel exposes lack of harmony caused by technical immature although author tries to make a new style novel by borrowing customs of Korean classical long novels.

This duplicity is regarded as a negative element but on the other hand it makes possible understanding the complicated meaning of this novel in the connection of author, period and novel genre.

Keyword : *Nanhakmong*, a long novel written in Chinese letters, duplicity,  
Protagonist group, author's consciousness

접수일자: 2012. 3. 31  
심사기간: 2012. 3. 31~2012. 5. 20  
게재결정: 2012. 5. 20